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5월 1일 부활 3주일 · 다해 · 백색

제57-17호

부활하는 사랑 - 용서와 환대의 밥상

(요한 21:1~19)

그리스도교 신앙은 낯선 나그네가 던지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펼쳐집니다. 낯익은 것을 떠나 새롭고 낯선 일에 마음을 열고 새 사람을 만나는 일로 교회는 성장합니다. 낯선 사람이 피워놓고 기다리는 모닥불에 지치고 젖은 자기 몸을 맡길 때, 그동안 믿고 누렸던 과거에서 벗어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초라하기까지 한 밥상에 초대받아 함께 음식을 마련하고 나눌 때, 우리 삶은 새로운 기운을 회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아침 밥상의 풍경이 주일에 모여 나누는 우리 성찬례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낙향하여 어부로 돌아옵니다. 밤새 그물질했으나 허탕입니다. 삶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실패가 따릅니다. 실패에 따른 낙담과 배신에 따른 죄책감이 압도하면 익숙한 일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다가와 그물 내릴 곳을 알려주자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할 때, 그동안 자신이 세운 목표와 욕심으로 가렸던 눈의 비늘을 뚫을 때, 오히려 새로운 시선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낯선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실마리는 그동안 자기 생각과 고집에 눈이 멀어 살피지 못했던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쁜 삶 탓에, 너무 익숙해서 허투루 대하고 잊고 사는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낮익어서 낯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기쁨 속에

서든 절망의 아픔 속에서든 여전히 곁에서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낯익어 낯선 얼굴들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몸소 모닥불을 피워놓으십니다. 부끄러움의 바다에 뛰어들어 젖은 채로 떨지 말고, 과거를 불태우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회복하라는 초대입니다. 손수 아침 밥상을 차리시면서도, ‘물고기 몇 마리를 가져오라’시며 그 밥상을 우리와 함께 만들고 완성하시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빵과 생선을 손수 ‘집어주시는’ 주님의 행동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의 손길이요, 우리가 밖을 향해 내밀어야 할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환대와 나눔의 밥상에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온전하게 일으키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사랑 확인은 과거 세 번의 부인이 남겨놓은 죄책감을 완전히 없앱니다. 참된 용서와 화해는 ‘마음이 슬퍼지도록’ 애뜻한 상태일 때야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을 용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삶과 세상에 사랑의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을 다시 세우고, 교회 안에 ‘수많은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끌어안도록 전도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과 화해하며, 낯설고 새로운 이들을 환대하여 함께 밥상을 차려 봉헌하며 나누는 일입니다. 용서와 화해, 사랑의 나눔이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교회의 삶이며 선교입니다.

(주낙현 신부)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할사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사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회장 김종희 요셉

사제회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유호에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이종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환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전례와 사목

1. 부활절기 전례 안내

부활절기 전례곡은 B곡 시편곡조는 앵글리칸 찬트(성가 49장)입니다. 부활절기 주일 전례에서는 니케아신경을 의웁니다(기도서 249쪽, 성가 76장).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성가책을 지침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활절기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평일 아침 성찬례를 오전 6시 30분 화·수·목·금에 성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신앙 생활에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 부활절기 심방 신청

5월 10일(화) - 관악 구역 4가정 예정

가정 심방을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이나 사목단에게 알려 주시고, 심방에 준하는 기도 면담을 원하시는 분도 신청하여 주십시오.

■ 알림

1. 교회위원회 사목과 선교 워크숍

오늘 오후 1시부터 성전에서 사목단, 교회위원회, 단체장 연석의 사목과 선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과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한 준비와 헌신을 위한 자리이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교회위원회 보고와 6월 사목 계획
- 영등포 성당 사목과 선교 기초 발표
- 건강한 교회 지표 안내
- 분야별 집중 토론과 실천 계획 작성

2. 사목단 부활절 피정

주낙현 신부 5월 3일-4일
구균하 신부 5월 10일-11일

3. 연중 봉헌 서약 접수

봉헌서약서를 연중 접수합니다. 봉헌의 신앙에 관한 안내문을 잘 읽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공회 성가책 판매

주일 성찬례와 전례 중에 사용할 개인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기도서와 같은 크기이며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성가를 사용하고 전례 중에 찬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정가 2만원입니다.

5. 제단 꽃 봉헌 요청

사무실 앞에 신청표에 봉헌하시는 분의 성함과 원하시는

날짜 그리고 내용을 쓰시고 봉헌해 주십시오.

■ 활동단체 소식

◆ 어머니회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1천원
- 고사리 주문 1봉 2만6천원 - 옛기름 600g 4천원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심민경(1일) 주창남 한기원(2일) 장분순(3일) 권오현(5일)
이정주(6일)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헌금

구정애 김복자 김중희 박영수 서남철 선병순 송미경 신명식
신환중 유혜경 윤선구 이경희 이난희 이현숙 정은숙

■ 주정헌금

김경아 김삼홍 박남미 서정민 송미경 송미정 송종의 신희숙
윤영옥 이경희 이상찬 이성빈 이정숙 이종한 전병도 정명옥
정상임 정은숙 주창순 한부순

■ 부활감사헌금

김복자 송미경 심민주 윤용길 이현숙 함옥순 무명

■ 감사헌금

김용학(딸가족일본출국) 윤선구(생일)
한부순(생일)

■ 기타헌금(미사 예물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헌금

■ 예수사랑헌금 유혜경

■ 성공회대장학헌금 유혜경

■ 극기헌금

김용학 정준희 차기성 무명 2명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헌금) 일반·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부활 50일, 부활초, 그리고 제대

부활절기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력에서 핵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구원의 승리를 감격스럽게 맛보았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토요일) 예배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교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주일-일요일)에 성찬례를 드렸습니다. 냉혹한 박해 아래서도 신자들은 생명을 걸고 모였습니다. 부활대축일은 일 년 중 가장 큰 주일이며, 이후 매 주일은 모두 '작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기는 부활주일로 시작하여 성령강림주일(오순절)에 이르는 오십(5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기는 <위대한 오십일>, <구원의 절기>, <기쁨의 오십일>로도 불렸습니다. 4세기 니케아공의회에서는 이 절기 동안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정했을 정도로 부활의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절기는 부활밤에서 시작하여 부활주일과 부활 후 팔일부, 그리고 사십 일째 되는 승천일을 거쳐 50일째 되는 성령강림일을 아우릅니다.

부활절기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일을 과거의 사건으로 축하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오늘과 미래에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인하고 되새기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 단 하루 종교적 의례로 머물지 않고, 우리가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날이 변화하고 성숙하며, 주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기쁨의 50일'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절기의 중심적인 상징 두 가지는 부활초와 세례대입니다. 부활초는 부활밤 새로 축복한 불에서 붙여서 세상의 어둠을 이긴 하나님의 빛, 즉 부활의 생명이 만든 빛을 드러냅니다. 부활밤 세례식에서 부활초로 물을 축복하고 그 물로 세례를 베풀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곳이 바로 성천(聖泉: 거룩한 샘)이라 불리는 세례대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세례대는 교회의 제대와 마주 보는 교회 입구 중앙에 부활초와 함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세례를 받아 제대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례대 앞에서 성수에 손을 적서 십자성호를 긋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음과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례의 경험과 언약을 되새기는 기도이지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제대와 성천(세례대)이 마주하며 복음의 성사인 성찬례와 세례를 되새겨줍니다. 우리 성당에도 세례대를 다시 마련해야겠습니다. 제대와 부활초, 그리고 세례대는 모두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삶이 은총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주기 때문입니다.

✦ 기도해 주세요 ✦

▣ 교회를 위하여

- ◆ 영등포 성당의 신앙 회복, 전례 회복, 교회 회복을 이루도록
- ◆ 지역 사회와 협력하도록
- ◆ 새교우를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 코로나 19를 넘어 일상회복을 위하여
- ◆ 대선 이후 사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 ◆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임 신 정선헌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가정을 위하여

- ◆ 주간 평일에도 성무일도를 바치는 가정이 되도록
- ◆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이순환
윤길자 이현숙 채중순 최중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화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얼(캐나다)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 입당성가(선다) ♪ 264장 다함께
- 정심기도 ✧ 244 집전자
- 죄의고백 ✧ 291 다함께
- 영광송 (B곡) ✧ 246 / ♪ 75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1 독서(읽는다) 사도 9:1-20 말은이
- 시편 시편 150편 다함께



- 1 주여, 나를 건져 주셨으니 높이 받들어 기리나이다.
 - 원수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2 나의 주 하느님, 살려 달라 외치는 내 소리를 들이시고
 - 병들었던 이 몸을 고쳐 주셨습니다.
- 3 주여, 내 목숨 지하에서 건져 주시고
 - 깊은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려 주셨습니다.
- 4 주님을 믿는 자들아, 찬양노래 불러라.
 -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기도 바쳐라.
- 5 당신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 주시고
 -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옷으로 갈아 입히셨습니다.
- 6 이는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라 하심이니
 - 주, 나의 하느님, 그 은총 노래에 담아 영원히 찬양 하리이다.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아|멘

- 2 독서(읽는다) 묵시 5:11-14 말은이
- 복음환호송(A곡) ✧ 291 / ♪ 55 말은이
- 복음서(선다) 요한 21:1-19 말은이
- 설교(읽는다) 말은이
- 니케아신경(선다) ✧ 249 / ♪ 76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 평화의 인사(선다) ✧ 292 다함께
- 봉헌성가 ♪ 514장 다함께
- 예물기도 ✧ 292 말은이
- 성찬기도(1양식) ✧ 257
 - 거룩하시다 (B곡) ✧ 257 / ♪ 77 다함께
 - 기념환호송(1양식) ✧ 259 / ♪ 62 다함께
 - 마침영광송 ✧ 259 / ♪ 64 다함께
-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 성체나눔 ✧ 269 다함께
 - 하느님의 어린양 (B곡) ✧ 270 / ♪ 78 다함께
- 영성체(읽는다) ✧ 270
 - 영성체 성가 성가대
-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 축복기도(선다) ✧ 292 집전자
- 파송 ✧ 272 말은이
- 파송성가 ♪ 553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5월 1일)		다음 주일 성찬례 (5월 8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설 교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서정민	이정숙	서정민	전병도
2독서	우영현	이복련	우영현	김경아
대 도	정상임	변금숙	신명식	신환중
십자가	윤용환	이종한	박해웅	차기성
다음 주일 5월 8일	전례독서 사도9:36-43 시편 23 묵시 7:9-17 요한 10:22-30			
	성 가 입당 276장 봉헌 507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292장			
교 회 청 소	5월 7일 유빌라테회 1조 김민경 천상옥 윤지훈		5월 14일 유빌라테회 2조 성하준 이현정 이자영	